

마을의 비보연못 특성 및 관리 - 강진 달마지 마을을 사례로 -

박재철 · 한상엽 · 김도균*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of Complementary Pond of Village - in Case of Dalmaji Village in Gangjin-gun -

Park, Jae Chul · Han, Sang Yub · Kim, Do Gy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cheon University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identifying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direction of complementary pond of Dalmaji village in Gangjin. Accordingly, this village was indicated as Experience and Resort village by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describes the construction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and identifies species diversity and characteristics through field survey. For this, literature and field survey was performed. In field survey, vegetational survey was performed in Aug. of 2015. D(Dominant degree) and S(Sociability degree) was measured by Brown-Blanquet's method. The answer was searched from Myungsanron(明山論), a textbook of Fengsui(風水) in Joseon dynasty. Of these causes, it was considered that the representative one is a protection of fire and infectious disease because the Wolgak mountain is a fire mountain(火山) as a stone mountain in Fengsui. The results demonstrate decline of aquatic ecosystem because of neglect management. The total number of species was 24. Of the species, *Zelkova serrata* is a natural vegetation of this complementary forest. This is nominated as *Lagerstroemia indica* and *Camellia japonica* community. Species composition demonstrat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outhern region as mixed forest of evergreen trees and deciduous ones which are indigenous plants. It was considered *Juniperus chinensis* KaizukaVariega in central round island was planted in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it have to be removed. It was considered that name of moon pond and moon island etc. projects the mind of village ancestors which are going to reach an ideal condition of moon. And management of quantity and depth of pond water was critical for restoration of disappearing lotus from related literature. Periodic management was needed for ecological structure and function improvement because of ecological disturbance by the invasive plants like *Humulus japonicus*.

Key words : Mountain of Fire Type, Myeongsanron, Fengsui, Restoration, Species Composition¹⁾

1. 서 론

한국이나 중국의 마을 비보는 마을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보는 어떤 사상이나 종교의 영향 보다 둘러싸인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하였다(Park, 2006). 마을 단위에서 확인되는 풍수의 성격은 마을 공동체 차원의 안위나 장소의 구분 등을 위한 공동체 풍수로서 민간차원의 종교와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Kwon, 2003). 달마지마을은 호남의 명산인 월출산 줄기의 월각산 기가 모이는 명당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마을 앞이 비어 있어 좋은 기가 빠져나가므로 마을에서 흘러내린 명당수가 모이는 수구에 비보숲을 조성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 Park, Jae-Chul

Tel : 063-290-1491

E-mail : pjcsael@woosuk.ac.kr

더욱이 비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 어귀에 비보숲과 더불어 선돌을 세웠으며, 에너지인 물을 가두어 서서히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비보 연못을 수구 부분에 조성하였다. 그 기능은 마을의 복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마을에서 버린 물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며, 전체적으로 마을의 형국을 온전하게 하고자하는 마을 선조들의 지혜의 산물이다. 이 중 비보숲의 경우는 동쪽의 벽수거리와 서쪽 밭에 두 개의 선돌이 있어 동서로 연결된 선형의 비보숲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사라지고 수고 21m, 나무둘레 4m, 수령 450년의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비보 연못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1990년대 Kim, H. B.(1991)의 ‘한국의 마을 원림에 관한 연구’이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보 경관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함께 보전과 복원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이를 통한 마을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체험휴양마을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융복합산업 및 종합정비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마을 경관 보전, 복원, 창출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마을 경관 보전과 복원의 핵심에 마을 비보 경관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방문객들에게 스토리텔링 자원으로서 활용하는데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보전 복원이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Jang, B. G. and Hwang B. C.(2006)은 대구 옷골 마을 비보경관연구에서 마을의 뒷산의 대암이 거북이 형태여서 거북이는 물이 있어야 생존한다고 하여 마을 입구에 비보 못을 조성하였으며, 이는 동네 아이들의 레크레이션용 수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고, 수질 정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Kim, H. J.(2008)은 대구 옷골마을 연구에서 비보연못이 일종의 혈의 보완장치로 상스러운 기운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마을 경관을 더 아름답게 하며 나쁜 기운의 유입을 차단하여 길지를 만

드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하였다. Park, S. G. and Kim, C. G.(2012)는 경남 고성군 외우산(外牛山) 마을의 경우 마을 뒤의 산세가 소가 누워 있는 것처럼 생긴 와우형(臥牛形)의 형국이어서 못을 파는 것이 좋다고 하여 마을 앞에 4천여 평의 못을 파고 못 뚝에는 숲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비보연못의 조성 동기나 기능에 대한 연구(Jang and Hwang, 2006; Kim, 2008; Lee, 2010; Park and Kim, 2012)가 대부분으로 비보연못의 특성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진 달마지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의 비보연못의 조성 배경 및 현황, 특성, 식생 등을 고찰하여 보전, 복원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행정구역상으로는 Figure 1의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월리 대월 마을의 비보연못이며, 이 마을은 월출산 자락의 월각산 밑에 자리 잡은 전라남도 대표적인 휴양 체험마을로 대월(對月)마을의 이름을 순우리말로 하여 달마지마을로 널리 알려져 체험관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로서 비보연못의 위치는 마을 입구로 Figure 2와 같다. 월각산 밑에 학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듯이 5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풍양 조씨와 해미 곽씨들이 함께 살아오면서 농사에 의존하고 있다. Figure 3과 같이 달마지마을 978-1번지에 위치한 비보연못은 40여평 규모이다 (http://dalmagi.go2vil.org/sub1/sub1_02.p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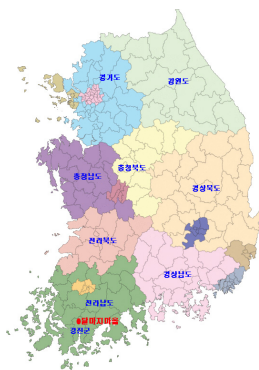


Figure 1. Location of Dalmaji Village



Figure 2. Complementary Pond and Protected Tree



Figure 3. Location of Complementary Pond on the Cadastral map

2. 연구 방법

가. 조사기간

달마지 마을 비보 연못의 1차 현지조사는 2014년 8월 20일에 1차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9월 19일에 학생들과 함께 마을 주변 등을 2차 조사하였다. 3차 조사는 2015년 9월 13일에 실시하여 비보연못의 길이, 너비, 수심 등을 실측하고, 식생을 조사하였으며 마을 유래 등은 달마지마을 휴양체험마을 위원장 및 이장, 마을 주민들과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나. 조사 및 분석방법

마을의 풍수 비보는 조선시대 풍수 교과서인 명산론의 제9편 산의 모양에 다른 길흉화복(吉凶砂形) 부분과 『심룡전서』라는 책의 글을 인용한 부분, 제12편 길귀(吉鬼) 중 금낭경을 인용한 부분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비보연못 관련 논문 및 문헌 등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특히 물 요소를 수구 비보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왜 물을 담는 연못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명산론 등을 통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비보연못 뿐만 아니라 비보경관 요소인 비보숲, 선돌,

제각 등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실측자료와 관련 문헌 및 인터넷을 통하여 소실된 비보연못 및 비보경관을 분석하여 복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보연못의 식생 조사 방법은 식물사회학적 방법인 B. Blanquet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점도(D) 및 군도(S)를 분석하고, 한벽당문집(寒碧堂文集)과 같은 고문헌의 한벽당 16영(詠), 칠언절구(七言絶句) 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종다양성 및 종조성을 분석하여 비보연못의 보전, 복원 및 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달마지마을 비보연못은 70.5㎡ 정도의 규모로 작아서 방형구에 의한 우점도(D) 및 군도(S)를 조사하지 않고 전체 면적에 대한 우점도(D) 및 군도(S)를 Table 1, Table 2와 같은 등급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못의 독과 가장자리, 수면, 섬을 전체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독과 가장자리, 수면, 섬 각각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풍수 분석 내용과 고문헌의 내용을 토대로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수종은 원색한국식물도감(Go and Kim, 1989)을 통해 현지 동정을 실시하고, 미동정된 수종은 사진을 촬영하여 연구실에 와서 한국의 자원식물(김태정, 1996) 등을 통하여 재차 검색하여 동정을 실시하였고, 남부 수종에 대해서는 촬영한 사진을 남부 수종 전문가에게 전송하여 동정을 받고 재차 도감을 통해 확인을 거쳐 정확한 동정을 실시하였다.

1) 우점도(우점도, dominance)는 한 종이 한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Braun-Blanquet(1964)는 우점도를 다음과 같이 7계급으로 나누었다.

2) 군도(群度, sociability)는 개체들의 집합(集合) 양식으로 Braun-Blanquet(1964)는 군도계급을 다음 5계급으로 나누어 판정하였다.

아울러 달마지마을은 월각산, 대월, 달못, 달섬 등 달과 관련된 지명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비보연못의 분석 시 달의 의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이러한 명칭이 비보와 보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Table 1. Dominance Degree of Braun-Blanquet(1964)

Degree	Criteria
r	appear very rarely
+	a few and coverage rate is very low
1	many, but coverage rate is low
2	very many, but coverage rate is below 1/10, or a few, but coverage rate is 1/10-1/4. but, population number is random
3	coverage rate is 1/4-1/2 and population number is random
4	coverage rate is 1/2-3/4 and population number is random
5	coverage rate is above 3/4 and population number is random

IV. 결과 및 고찰

1. 마을 비보

비보숲의 경우는 Figure 4와 같이 동쪽의 벽수거리와 서쪽 밭에 두 개의 선들이 있어 동서로 연결된 선형의 비보숲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사라지고 Figure 5와 같이 수고 21m, 나무둘레 4m, 수령 450년의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고 비보연못에 느티나무가 2주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들 느티나무는 비보숲의 원래의 식생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자연식생으로 중요한 복원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비보숲이 있던 자리에 은행나무 2주와 종려 7주가 식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원래 비보숲의 경관을 형성하던 수종으로 볼 수 없는 이질적인 수종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비보 경관 요소로 선돌과 의혜각(義惠閣)이 세워져 있고 비보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마을 위원장인 이운배 위원장과 이장, 주민 등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마을 입구가 풍수적으로 공허하면 지기가 흩어질 우려가 높아 마을주민들이 숲과 못과 독을 조성하여 풍수지리적으로 안락함을 추구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달마지마을의 경우 월각산에서 급경사로 흘러내린 물이 마을을 감싸면서 흐르는 데 그 길이가 100m정도로 짧아 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형국이므로 이를 지연시키고 머무르게 할 목적으로 비보연못을 조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쿠데이키(作庭記)에서는 사신상응(四神相應)의 땅은 풍수의 명당론에 해당되며, 동쪽에 유수(流水), 서쪽에 대도(大道), 남쪽에 연못, 북쪽에 언덕에 둘러싸인 지세를 말하는 데(Kim, 2013), 여기서 남쪽에 연못이 언급되고 있다. 마을의 비보 연못이 명당을 만들기 위한 남쪽의 연못에 해당된다.

월각산은 월출산이 남으로 뻗어 내린 줄기에 속하는 산으로 Figure 5와 같이 월출산보다는 기가 약하지만 조선시대 풍수학 교과서인 명산론(明山論)에 의하면 화형(火形)의 산으로 화형의 산에서 하나의 능선이 길게 뻗

어 내리면 학으로 비유한다. 학은 그 고고한 자태 때문에 선학(仙鶴)이라고 불렸고 장수를 상징하여 십장생의 하나로 손꼽아왔다. 특히 학무늬를 기물에 새겨 장수와 행복을 기원하였던 것(Choi, 2007)을 볼 때 월각산 하나의 능선이 길게 뻗어 내린 곳에 마을이 Figure 4, 5와 같이 입지하여 현재 대명동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비학응천형(飛鶴應天形)의 형국을 형성하고 있는 명당이다. 명산론(明山論)에는 “산이 멈추어 기가 모이면 사람들이 모이고, 산이 크면 사람이 용감하고(山歸人聚 山長人勇)”라고 되어 있는 데 월각산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 젖이 적어 푹 꺼진 것과 같은 산인 경우에는, 못이 부족한 산을 감당해 주어야 한다(若闕乳山 池沼應之)”라고 하였는데 월각산이 Figure 5와 같이 산봉우리가 작아 젖이 적은 모습을 보이므로 연못을 조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금낭경』에 이르기를 “기(氣)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에 다다르면 머문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못 산들이 뻗어와 쌓이고 못 물들이 흘러와 멈추어 모이면 음과 양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산과 물이 문안드리듯 와서 모이면 기가 모이게 된다(經曰, 氣乘風則散, 界水則止, 又曰, 來積止聚, 沖陽和陰. 故, 山水朝聚, 則爲氣聚). 이를 통해 달마지마을의 비보연못 위치는 두 갈래의 물이 모이는 수구(水口)로 기를 머물게 하고 음양의 조화를 위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돌산의 경우에는 돌림병과 화재가 자주난다(且 如石山 則主瘧火)”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돌림병과 화재를 막기 위하여 비보숲과 비보연못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Kim, 2002). 즉, 16세기 초부터 18세기까지 약 200여 년간 진행된 자연재해로 조선 후기 류서류(類書類)에는 기근에 따른 기아사와 전염병 창궐에 따른 질병사 관련 내용이 곳곳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Song, 2010) 전염병 즉 돌림병을 막기 위한 비보경관 조성이 중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Park(2010)의 연구에서도 화산인 마이산 주변의 비보숲 조성동기에서도 밝혔듯이 조선시대까지는 마을의 집들이 주로 초가가 대부분으로 화재에 의한 마을의 전소 위험이 가장 컸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 Sociability Degree of Braun-Blanquet(1964)

Degree	Criteria
1	grow lonely
2	grow as colony or collective type
3	grow collectively as cushion arrangement type
4	grow collectively as carpet type, and other species grow on the random hole of carpet type
5	grow as big community, and form net community through full coverage with branch and leaf of same species contacting each other



Figure 4. Left blue dragon and right white tiger, complementary pond, complementary forest



Figure 5. Location of Complementary Elements



Figure 6. Type of responding sky of flying crane(飛鶴應天形)

2. 비보 연못 특성 및 관리

달마지 마을의 비보연못은 Table 3과 같이 마을 앞 수

구에 비보의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사다리꼴 형태로 면적은 70.5㎡, 약 21.4평으로 마을의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40여 평 보다는 18.6평이 작은 상태로 비보연못이 농경지로 잠식되어 현재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중앙에는 달을 상징하는 반경 2.5m 정도의 원형 달섬이 조성되어 있다.

비보연못에 대한 식생 조사 결과 Table 5와 같이 총 24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배롱나무와 동백나무가 비슷한 우점을 보이고 있는 배롱나무-동백나무 군락으로 명명할 수 있었다. 연못의 가운데에는 원형의 섬인 달섬이 있는데 식생은 배롱나무 1주, 용버들 1주, 가이즈까향나무 1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용버들은 용으로 승천하기를 염원하는 바람에서 식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물가의 식생으로 적지적수(適地適樹)의 개념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식재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배롱나무는 식물의 품격을 1품에서 9품으로 나는 강희안(1417~1464)의 양화소록(養花小錄)에서는 백일홍이 매화, 소나무와 함께 1품으로 가장 위품으로 등재되어 있고, 후한서(권48)에는 하늘에 자미궁이 있는데 상제가 거처하는 곳이다(天有紫微宮 是上帝之所居也)라고 되어 있어 자미화 즉 배롱나무는 ‘꽃 중의 성자’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http://moyangsung.blog.me/220543773227>)고 한다. 배롱나무가 꺾질이 벗겨지면서 자라듯이 속세를 벗어버리고 다다르고자 하는 이상향인 고매한 인품을 상징하기 위하여 식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이즈까향나무는 일제 식민시기를 거치면서 일제의 영향으로 식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복원을 위해서는 제거하고 다른 수종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중식물로는 창포, 석창포, 줄, 연꽃, 고마리 등 5종이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마리가 50% 정도의 피복으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수중생태계는 고마리 군락으로 명명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창포가 우점하였고, 줄, 석창포 순이었다. 특히 창포와 석창포는 수변 가장자리에 주로 분포하는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종의 출현만을 볼 때는 수중에는 모두 향토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중생태계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마을 출신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mplementary Pond in Dalmaji Village

Pond Name	Ownership	Location	Form	Topography	Length(m)	Width(m)	Depth of water level(cm)	Area	Type	Purpose
Moon Pond	Private	Front of Village	Trapezoid	Flat	15	10	30	70.5㎡	Water Processing Type	Complementation

으로 조선 중기의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박사, 호조예조좌랑, 부안현감 등을 지내셨으나 연고(年高)하신 노부모의 효양을 위해 재임 1년 만에 관직을 접고 고향에 돌아와 은거하면서 정유재란때 의병장으로 활동하신 문신이며 의병장인 광기수(郭期壽)(1549-1616) 선생의 호를 딴 한벽당문집(寒碧堂文集)의 한벽당 16영(詠)에는 Table 4와 같이 매오청향(梅塢清香) 등 16수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蓮沼游魚 즉 연못에서 노는 물고기’ 시가 비보연못과 관련된 시로서 이를 통해 볼 때 이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고 물고기들이 노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蓮沼游魚

六月南風吹芙蓉開小池小池游魚聚復早闌萍吹沫

유월에 남풍이 부니 연꽃이 작은 못에 피었다.
작은 연못에 헤엄치는 고기 모였다 흩어져,
부평초를 쏘다니며 거품을 품고 물결에 뿜다.

그러나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원래 1m정도 되는 수심인데, 수심이 30cm도 안되게 낮아져서 부유식물은 찾아볼 수 없고 주로 고마리 군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꽃은 1개체만이 발견되어 연꽃이 소멸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연꽃의 생육과 토종 물고기들이 노닐기 위해서는 수량과 수심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변 덕에는 교목으로는 우점종인 배롱나무, 동백나무 외에 느티나무, 단풍나무, 무궁화, 때죽나무, 호랑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등이 서식하고 있었는데, 이 중

느티나무는 마을 비보숲의 보호수가 느티나무인 점으로 볼 때 느티나무는 수구(水口)지역에 자생하는 자연식생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단풍나무, 무궁화, 때죽나무, 호랑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등은 연못의 소유자의 취향에 따라 식재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자연식생인 느티나무를 제외하면 상록은 동백나무, 호랑가시나무, 붉가시나무의 3종이고, 낙엽은 배롱나무, 단풍나무, 무궁화, 때죽나무의 4종으로 상록과 낙엽이 잘 배합된 식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향토종으로 되어 있어 상록활엽수와 낙엽활엽수가 혼효하는 난온대림의 특성을 잘 반영한 식재라고 사료된다. 수변의 초본류로는 개모시풀, 참취, 자귀나무 치수, 옥잠화, 꽃무릇, 닭의장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옥잠화, 개모시풀, 참취, 닭의장풀은 자생하는 식물이고, 자귀나무, 꽃무릇은 식재를 통하여 보완한 식물로 사료된다. 한벽당 선생의 칠언절구에 ‘옥잠화(玉簪花)’라는 시가 전하는 데 그 내용은“ 향아가 달나라에서 약을 몰래 훔쳐 머리카락에 향유를 바르고 매끄럽게 하늘을 미끄러지고 푸른 구름에 기댄 듯이 머무르다 땅으로 내려오니 부녀자들이 머리에 꽂고 따라 하기를 즐기네”라고 되어 있다. 향아(姮娥)는 달나라에 산다고 하는 미인의 이름인데 달나라 미인이 머리에 꽂았던 꽃으로 묘사되고 있어 옥잠화는 이 연못에 자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초본층에는 동백나무 치수와 느티나무 치수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다른 종에 비하여 천연갱신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종들은 선택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초본류에서도 자생식물과 도입종을 잘 활용하여 비보연못의 경관을 잘 조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만경류로는

Table 4. 16 Poems of Hanbyeokdang

16 Poems of Hanbyeokdang	Meaning	Plants	Animals
梅塢清香	Clear aroma of plum flower beds	Plum, Bamboo	
竹林疎影	Sparse shadow of a bamboo forest	Bamboo	
庭梧露月	Clear night moon of paulownia yard	paulownia	phoenix
提柳光風	Cool breeze in the willows	Willow	
松巖小瀑	A small waterfall in a rocky pine	Pine	
蓮沼游魚	Fish playing in the pond	Lotus	Fish
月峯奇巖	Praiseworthy rock of moon peaks		
休峯閑雲	Free cloud on rest peaks	Pine	
西坂春花	Spring flower of Seopan	Spring flower	Cuckoo
東郊秋稻	Autumn rice in the east field	Rice	
駒橋牧笛	Shepherds flute of cloud bridge	Apricot	Cow, Shepherd
城川垂釣	Casts fishing in Seongcheon Stream	Willow	seagull
長松落雪	Snow fell in long pine leaves	Pine	Jackdaw
遠村炊烟	Smoke for making rice in the distant village	Bamboo	
栗亭拾栗	Pick up chestnut at Chestnut arbor	Chestnut	Squirrel
茶林摘茶	Drink tea in tea-tree forest	Tea-tree	

담쟁이덩굴과 환삼덩굴이 나타나고 있는 데 한벽당 선생의 칠언절구 중 ‘소지(小池)’라는 시를 보면 “못 위에 비추어진 햇살 서로 비추느라 요란하고 담쟁이 꽃은 하늘 허리에 걸려 뽐내는데(池影搖雙鏡 薔花照半空)”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담쟁이덩굴은 비보연못의 구성종으로 지속적인 관리 속에 존속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환삼덩굴은 한해살이 식물로서 드물게 출현하고 있는데, 최근 연못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보연못의 주기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3. 달과 관련된 명칭 고찰

이 마을에는 달과 관련된 명칭이 많다. 마을의 이름도 대월(對月) 즉 달을 대하는 마을, 달마지마을이라고 되

어 있고 마을의 주산도 월출산 줄기인 월각산(月角山)이고, 마을의 비보연못도 달못이고 연못의 섬도 달섬이다. 고대인들은 달은 서방을 자유 왕래할 수 있어 해탈의 형상으로 본다든지, 불변의 존재, 고매한 인품을 가진 존재로 파악하여 연못의 대상이었으며 영원회귀로 통하는 것이었다(Kim, 1983).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상징하여 달은 둥글고 가득찬 마음, 밝고 맑은 마음자리, 수행의 완성등을 상징한다(Kwon, 2014). 달섬은 신선사상의 이상향인 신산(神山)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 마을의 선조들은 달의 이상향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을 달과 연관된 지명을 통해 표출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달섬을 비보섬, 비보연못, 보호수, 선돌, 제각 등과 더불어 신선사상을 통해 신성시함으로써 보전 및 비보기능을 강화하는 요소로 활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 Species Composition of Complementary Pond

Community		<i>Lagerstroemia indica</i> - <i>Camellia japonica</i> community		Remarks
Year		2015		
Serial number		1		
Slope Aspect		None		
size(m ²)		70.5		
Height of Tree-1 Layer(m)		4		
Coverage of Tree-1(%)		50		
Height of Tree-2 Layer(m)		1.5		
Coverage of Tree-2(%)		10		
Height of shrub Layer(m)		1		
coverage of shrub Layer(%)		25		
Height of Herb Layer(m)		0.4		
coverage of Herb Layer(%)		30		
Number of Species		24		
<i>Lagerstroemia indica</i>	T1	3.3		배롱나무
<i>Camellia japonica</i>	T1	3.3		동백나무
	H	1.1		
<i>Salix matsudana for. tortuosa</i>	T1	1.1		용버들
<i>Zelkova serrata</i>	T1	1.1		느티나무
	H	1.1		
<i>Acer palmatum</i>	T1	1.2		단풍나무
<i>Hibiscus syriacus</i>	T2	2.2		무궁화
<i>Ilex cornuta</i>	T1	1.1		호랑가시나무
<i>Styrax japonica</i>	T1	r.1		매죽나무
<i>Juniperus chinensis KaizukaVariega</i>	T1	r		가이즈까향나무
<i>Quercus acuta</i>	T1	1.1		북가시나무
<i>Rhododendron yedoense var. poukhanense</i>	S	2.2		산철쭉
<i>Acorus calamus var. angustatus</i>	H	2.3		창포
<i>Acorus graminens</i>	H	1.1		석창포
<i>Zizania latifolia</i>	H	1.1		줄
<i>Nelumbo nucifera</i>	H	r		연꽃
<i>Persicaria thunbergii</i>	H	3.2		고마리
<i>Boehmeria plataniifolia</i>	H	1.2		개보시풀
<i>Aster scaber</i>	H	2.1		참취
<i>Albizia julibrissin</i>	H	r		자귀나무
<i>Hosta plantaginea</i>	H	r		옥잠화
<i>Lycoris radiata</i>	H	r		꽃무릇
<i>Commelina communis</i>	H	r		닭의장풀
<i>Parthenocissus tricuspidata</i>	H	r		담쟁이덩굴
<i>Humulus japonicus</i>	H	r		환삼덩굴

V. 결 론

도선국사의 풍수 비보의 발상지라고 할 만한 월출산 자락의 월각산 줄기에 위치한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체험 휴양마을인 강진 달마지 마을의 비보연못에 대한 조성 배경 및 특성에 따른 관리방안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달마지마을은 풍수적으로 화산(火山)인 월각산 하나의 능선이 길게 뻗어내린 곳에 학이 날개를 편 것과 같은 형상의 마을로 현재 대명동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비hawk천형(飛鶴應天形)의 형국을 형성하고 있는 명당이다.

비보 요소로는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고 비보연못에 느티나무가 일부 남아 있어, 느티나무는 비보숲의 원래의 식생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자연식생으로 복원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비보 경관 요소로 비보연못과 선돌, 의혜각(義惠閣) 등이 있다.

조선시대 풍수학 교과서인 명산론(明山論)에는 월각산은 월출산 자락으로 기가 모인 산으로 한벽당 광기수 선생 같은 문신이면서 의병장인 인물들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같은 서적에는 월출산에 비하여 봉우리가 빈약하여 부족한 산을 연못을 조성하여 보충하고 기를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연못을 조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조선 중기 이후 들림병과 화재가 마을에 큰 재앙을 불러왔으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비보숲과 비보연못을 조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비보연못에 대한 식생 조사 결과 총 24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배롱나무와 동백나무가 비슷한 우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배롱나무-동백나무 군락으로 명명할 수 있었다.

연못의 가운데에는 원형의 섬이 있는 데 식생은 배롱나무 1주, 용버들 1주, 가이즈까향나무 1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용버들은 용으로 승천하기를 염원하는 바람에서 식재한 것으로 사료되고, 배롱나무는 속세를 벗어 버리고 다다르고자 하는 이상향인 고매한 인품을 상징하기 위하여 식재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가이즈까향나무는 일제 식민시기에 일제의 영향으로 식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복원을 위해서는 다른 향토수종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보연못은 사다리꼴 형태로 면적은 70.5m², 약 21.4평으로 마을의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40여평 보다는 18.6평이 작은 상태로 비보연못이 농경지로 잠식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면적 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수생태계 식물로는 창포, 석창포, 줄, 연꽃, 고마리 등 5종이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마리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수생태계 식생은 고마리 군락으로 명명될 수 있었다.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수심이 30cm도 안되게 낮아져서 고마리 군락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연꽃은 1개 체만이 발견되어 연꽃이 소멸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한벽당문집에 나타난 것처럼 연꽃의 생육과 토종 물고기들이 노닐기 위해서는 수량과 수심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느티나무는 자생지가 계곡의 석간지로서 수구 부분의 수분조건이 좋은 곳에 자생하고 있던 것을 보전하여 비보숲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연 식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재 보호수로 자라고 있는 느티나무도 왕성한 자람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식재했다고 보기 보다는 자연식생 중 양호한 것을 보존하여 신양성을 부여해서 잘 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연식생인 느티나무를 제외하면 상록은 동백나무, 호랑가시나무, 붉가시나무의 3종이고, 낙엽은 배롱나무, 단풍나무, 무궁화, 매죽나무의 4종으로 상록과 낙엽이 잘 배합된 식생으로 구성된 향토 종으로써 난온대림의 특성을 잘 반영한 식재라고 사료된다.

수변의 초본류로는 개모시풀, 참취, 자귀나무, 옥잠화, 꽃무릇, 닭의장풀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 중 옥잠화, 개모시풀, 참취, 닭의장풀은 자생하는 식물이고, 자귀나무, 꽃무릇은 식재를 통하여 보완한 식물로 자생식물과 도입종을 잘 활용하여 비보연못의 경관을 잘 조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벽당 광기수 선생의 칠언절구에 ‘옥잠화(玉簪花)’라는 시가 전하는 데 달나라 미인이 머리에 꽂았던 꽃으로 묘사되고 있어 옥잠화는 이 연못에 자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본층에는 동백나무 치수와 느티나무 치수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다른 종에 비하여 천연 갱신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종들은 선택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만경류로는 담쟁이덩굴과 환삼덩굴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벽당 선생의 시에 담쟁이 꽃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담쟁이덩굴은 비보연못의 구성 종으로 지속적인 관리 속에 존속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환삼덩굴은 한해살이 식물로서 최근 연못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비보연못의 주기적인 식생 관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달과 관련된 명칭들이 많은 것은 이 마을의 선조들은 달의 이상향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을 달과 연관

된 지명을 통해 표출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달섬을 신선사상을 통해 신성시함으로서 보전 및 비보기능을 강화하는 요소로 활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강진 달마지 마을 비보연못을 사례로 특성과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한 결과로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비보연못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더 일반화된 특성과 관리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달과 관련된 명칭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추후에 이루어져야 좀 더 이 마을의 비보연못에 대한 심층적인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Braun-Blanquet, J.(1964) Pflanzensoziologie. 3. Auflage. Wien, New York. 865.
2. Chae, Seong Woo, Kim, Du Gyu(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2002, Myeongsanron, Bibong publisher, 150, 155, 162.
3. Choi, Nak Gi, 2007, If you know the Feng Shui correctly, you can be a rich man, Korea Research Information Co., Ltd.
4. Go, Gyeong Sik and Kim, Yoon Sik, 1989, Original Color Korean Plant Encyclopedia, Doseochulpan Academy Seojeok.
5. Guak, Gi Su, translated by Lee, Baek Soon, 2010, Anthology of Hanbyeokdang Scholar, Doseochulpan Balhaeographics.
6. Jang, Byoung Kwan and Whang, Bo Chul, 2008,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Meaning of Bibo Landscape in Olgol Villag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6(2), 32-41.
7. Kim, Hak Beom, 1991, A study on the Korean village grove, doctoral thesis of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8. Kim, Hee Joong, 2008, The research about Feng-Shui location of Traditional settlement -Focus on Daegu OkGol village-, doctoral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DaeguHaany University.
9. Kim, Seung Yoon, 2013, (A) study on Sakuteiki(作庭記) : focused on the East-Asian garden design principles, doctoral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0. Kim, Tae Jeong, 1996, Resources Plants of Korea I, II, III, IV, V,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1. Kim, Yeon Soo, 1983, Research of the Lunar Meaning appeared in Silla-Poetry, Dongak Language Literature Paper Collection, 18, 265-306.
12. Kwon, Jung Seo, 2014, Monk, are you present?, Jisiknomad.
13. Kwon, Seon Jeong, 2003, Folk Landscape as a Signifying System of Fengshui and Folk Belief in Geumsan region, Geography Research 37(4) : 427-441
14. Lee, Young Jin, 2010, Types of Defense Fengshui in traditional villages by their locational patterns, Folk Research 21, 37-69.
15. Park, Jae Chul, 2006, Concept and Case of Village Grove, Academia Koreana of Keimyung University, Keimyung Korean Studies Journal 33, 233-262.
16. Park, Jae Chul, 2010, Background about Establishment and Remain of Complementary Village Grove around Mai Mountain,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5(3), 209-218.
17. Park, Sang Goo, Kim, Cheol Gyu, 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Geographical Surroundings of Traditional Village on the Bibo Landscape,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Division 28(7), 71-78.
18. Park, Sang Goo, 2014, A study on the Bibo landscape of Korean traditional villages - An analysis of ecological architecture to Bibo landscape -, doctoral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19. Song, Hwa Seob, 2010, Folklores on Guwhang (famine relief) and Beokon (disease treatment) of Ryuseoryu during the late Choseon dynasty period - Focused on 『Jungbo Salrim Kyeonjae』, The Institute of Hisorical Folklore, 34, 103-136.
20. http://dalmagi.go2vil.org/sub1/sub1_02.php
21. <http://moyangsung.blog.me/220543773227>

-
- Received 2 November 2015
 - First Revised 1 December 2015
 - Second Revised 21 December 2015
 - Finally Revised 23 December 2015
 - Accepted 23 December 2015